

진보사서 '조이아 혼'과 그녀의 도서관 자유 사상*

Progressive Librarian 'Zoia M. Horn' and Her Library Freedom Ideologies

김 선 호(Seon-Ho Kim)**

〈목 차〉

I. 서론	1. 좌우명
1. 연구의 필요성	2. 주요이력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V. 조이아 혼의 도서관 자유 사상
3. 연구의 제한점	1. 평등
II. 진보사서직의 이해	2. 지적 자유
1. 출현과 정의	3. 인류평화
2. 사회적 역할	V. 결론
III. 조이아 혼의 생애와 활동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진보사서직 사상의 추세와 다양성을 밝혀서 국내 사서직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 진보사서인 '조이아 혼(Zoia M. Horn, 1918-2014)' 이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 자유사상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Horn의 핵심적인 도서관 자유사상은 평등, 지적자유, 그리고 인류평화라는 것과 이러한 핵심 사상의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다.

키워드: 도서관 사상, 조이아 혼, 진보사서, 도서관 자유, 평등, 지적자유, 인류평화

ABSTRACT

Uncovering ideological trends and varieties embedded in contemporary progressive librarianship, the depth and breath of the librarians' thoughts should be more expandable than before. That is the purpose of the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ey ideologies of American progressive librarian Zoia M. Horn(1918-2014) as reviewing carefully her biography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As a result, author suggests that the core values of Z.M. Horn's library freedom ideologies have identified as equality, intellectual freedom, and pacifism. In addition, the ingredients of these core ideologies also were identified.

Keywords: Library ideology, Zoia M. Horn, Library freedom, Progressive librarian, Equality, Intellectual freedom, Pacifism

* 본 연구는 2015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unkim@daegu.ac.kr)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43-68,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금의 다원주의사회를 맞이하여, 다수의 국내외 사서들은 스스로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자(patron)의 변화무쌍한 요구, 특히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용자의 이러한 변화 추세에 맞추어 자신의 입장이 점점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서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전통적인 교육/문화적 가치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도서관의 전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비평적 시각을 갖고 있는 진보사서¹⁾들에 의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해서, 이들은 비평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의 핵심적 가치는 학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시민권, 헌법적 권리,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므로, 정보의 정치학을 통하여 현재의 도서관 상업주의를 촉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거대 담론(grand récit)인 관리통제주의의 확산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Lekie & Buschman, xi.).

이들의 주장은 또한 UN 세계인권선언의 1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보접근의 자유에 확고한 신념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Byrne, 2), IFLA의 도서관 핵심적 가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도서관의 핵심적 가치는 (1) 세계인권선언서에서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력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원칙을 보장하는 것, (2)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민주적 그리고 경제적 웰-빙을 위하여 정보, 아이디어, 상상력에 의한 저작물에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중, 커뮤니티, 그리고 기관의 믿음, (3) 질적으로 최고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은 그 같은 접근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4) 연맹의 모든 회원은 시민권, 장애, 태생, 성, 지역, 언어, 정치철학, 인종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Samek, 10).

이 외에도 진보사서들은 도서관이란 제도적 도구가 아니라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사회적 포럼(forum)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찾은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성,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이단성, 그리고 성취향성 등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민주적이고 사회적이며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ALA의 LBR(Library Bill of Rights)의 주장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적 사상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산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점차

1) 이 글에서 진보사서란 progressive librarian, critical librarian, activist librarian,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 radical librarian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단어로 사용함.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Peña McCook, 2014). 국내 도서관계에서도 최근 들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진보사서직의 중립성에 대한 연구(김선호, 2013)가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 관련 연구로는 지적 자유(정태현, 2000) 그리고 프라이버시(노영희, 2012) 연구 등이 있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연구들은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운영여건을 조사하여 제한요인을 밝히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연구들이 지적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어의적 정치성과 사상성이 아니라, 주로 관리/기술 중심의 실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진보사서직에서 주장하는 정보의 정치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서 이처럼 사서직의 정치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진보사서직이란 단어나 그 의미가 아직은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주요 관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의 단적인 예가 전 세계적인 국제 진보사서 프로젝트²⁾에 우리나라의 관련 사이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속불가란 것이다.³⁾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직에서 전통적으로 우월적 입장에 있는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진보주의의 주요 사상을 밝혀, 현대 진보사서직 사상의 추세와 다양성에 대한 국내 사서직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인 진보사서의 정확한 숫자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들은 도서관계의 소수자이다. 그렇지만, 이 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진보사서들의 도서관 사상을 분석하여 이들의 핵심사상을 추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진보사서를 선정한 다음, 그의 진보사상을 추론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사서로 Z. M. Horn(1918-2014)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현대 미국을 움직이는 100인의 사서⁴⁾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도서관 자유를 위한 “용기 있는 십자군(courageous crusader)” 또는 “도서관 자유전사(library freedom fighter)”⁵⁾라는 호칭을 얻었다. 또한 그녀는 진보사서를 위한 포럼인 저명한 학술지 PR(Progressive Librarians)의 창간호 서문⁶⁾에서도 창간에 영향을 끼친 3인⁷⁾중의 한 명

2) Progressive Librarians' Projects Around the World - the beginning of a worldwide network. <<http://libr.org/international/#Korea>> [cited 2016. 8. 30].

3) Institute of Library and Culture Movement Korea. <<http://www.libmove.or.kr>> [cited 2016. 7. 4].

4) 100 of the Most Important 20th Century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http://archives.library.illinois.edu/ala-search-holdings/guides/100-library-leaders/>> [cited 2016. 7. 4].

5) Library Journal, 2016. 09.17. "Library Freedom Fighter Zoia Horn Remembered," <<http://lj.libraryjournal.com/2014/08/people/library-freedom-fighter-zoia-horn-remembered/>> [cited 2016. 8. 30].

6) Library Journal의 상업화에 맞서서, 비평적이고 사회적 행동주의자인 사서를 위한 학술지. <<http://www.progr>

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녀의 도서관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진보사서직 전체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그녀는 본 연구의 훌륭한 표본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진보사서직이 아직 낮은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이 글에서 밝힌 Z. M. Horn의 주장이 너무 앞서 가거나 선동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 교육이나 운동 및 서비스 정책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Horn의 인류평화사상을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도서관 자유사상의 중요한 핵심 가치에 포함시켰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II. 진보사서직의 이해

1. 출현과 정의

진보사서직의 출현은 ALA와 IFLA의 태생적 보수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서들에 의해 서 대두되었다. “이 기관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급진적 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진보적 기관이 필요하며, 보수적 기관과 진보적 기관이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또는 대립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Shiraz Durrani의 주장과(Samek, 13) “도서관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욱 더 적합해져 간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적 기관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Durrani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Samek, 12-13), 기존의 ALA나 IFLA의 보수성에 대한 반작용이 진보사서직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저항정신과 더불어, 진보사서들은 이용자 모두가 기능적 민주주의(functioning democracy)의 기본적 요소들⁸⁾ 중의 하나인 교양과 학식의 시민(well-informed citizenry)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편안하고 평등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신념을 가지고 있다(Eryaman, 133-134). 이러한 정신을 근거로, 이들은 도서관이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소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서관의

essivelibrariansguild.org/PL_Jnl/pdf/PL1_summer1990.pdf [cited 2016. 8.30].

7) Sanford Berman, E.J. Josey, Zioa Horn. <<http://www.progressivelibrariansguild.org>> [cited 2016. 8. 30].

8) 기능적 민주주의의 3대 요소는 교양과 학식의 시민,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다. <globalmedia.journals.ac.za/pub/article/download/1/2> [cited 2016. 8. 30].

이 같은 진보적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 가치와 다른 새로운 가치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Hoffmann, 53-54).

진보사서직의 필요성이 공식기관과 여러 도서관학자에 의해 표출됨으로써, 이것의 정의에 대한 노력이 또한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정의는 2004년 IFLA의 “The Declaration from Buenos Aires on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에 잘 나타나 있다⁹⁾. 이 선언서에는 기존의 IFLA 선언서의 보수적 내용과 달리, 진보사서직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ALA 출신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선언서의 채택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서는 최초로 중남미 출신의 진보사서들이 협력하여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서 IFLA 의장은 “... 민주적 정보봉사를 확립하고 유지하면서, 세계인권선언서에 부응하도록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조치가 바로 도서관의 국제적인 협력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선언서에는 “... 도서관은 자유, 평등, 사회적 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존경, 공평, 단결,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발달한 공동의 문화적 재화이면서 자원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Samek, 13).

이 선언서의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진보사서직의 정의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는 관련 학술지나 웹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진보사서직의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 학술지 PL(Progressive Librarian)의 서문을 보면, “진보사서직에서 ‘인민도서관(libraries for the people)’은 방어와 확장을 통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사회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는 공공의 중요한 거점들(anchors)중의 하나라는 아이디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¹⁰⁾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기서 진보사서는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중립적이지 않고, 당파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하나의 자료는 Journal of Radical Librarianship을 간행하고 있는 RLC(The Radical Librarians Collective)이다.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밝힌 자신의 설립 목적¹¹⁾을 참조하면, 진보사서직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 RLC에서는 “사서직의 윤리적 원칙들이 분류에서 벗어나 아류(marginalised)가 되었고, 업무 또한 점점 시장화 되었으며, 직업적 담론들이 탈-정치화됨으로써, 이러한 인식에 맞서기 위하여 이 기관과 학술지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주요 관심은 “공공의 재화를 사적인 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정보의 상업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ngela Davis가 주장한 “진보적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예문과 함께, 기관명에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킨 것도 “사서직의 윤리적 원칙의 제일성(primacy) 뿐만 아니라 급진

9) Librarians and Human Rights. <<http://hrlibs.blogspot.kr/2006/02/declaration-from-buenos-aires-on.html>> [cited 2016. 10. 30].

10) Progressive Librarian Guild. <<http://www.progressivelibrariansguild.org/>> [cited 2016. 10. 30].

11) libraries & commodification of information. <<https://rlc.radicalibrarianship.org/>> [cited 2016. 10. 30].

적 좌파의 정치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애국자법(US Patriot Act)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국가의 감시가 하나의 규범처럼 정당화된 네트워크 세계가 점점 더 확장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서직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이 조직에서는 2014년 영국에서 개최한 국제적 모임에서 Open Access, 감시, 그리고 사서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권력기관이나 국가의 수집 요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논제를 다루었다. 이 모임에서 “국가에 간섭 없이 질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제공은 지적 자유가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사서직의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라는데 참석자들이 동의하면서, Library Freedom Project¹²⁾에 대한 미국 동지들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ALA에서 지적 자유를 “마음의 자유(freedom of the mind)”라 정의한 것(ALA, xvii)처럼, 진보사서들은 마음의 자유란 모든 생각에서 나온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제한이나 타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용자의 권리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지적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양심과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여기고 있다(Hoffman, 53-54).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서들과 관련기관들에서 밝힌 정의를 간추려 보면, 진보사서직이란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와 같은 민주적 가치와 지적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 및 법인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공공재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이자 윤리적 가치라는 좌파적 성향의 사서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역할

진보사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남미 아르헨티나의 진보사서이면서 무정부주의자인 Edgardo Civallero는 “사서는 교육, 정보접근, 표현의 자유, 정체성을 보증하듯이 자유와 인권을 보증하여야 한다. ... 사서는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서 싸워야 하며, 관용과 존경을 가르쳐야 하고, 다문화사회의 융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사서는 늘 침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야 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고, 자신들의 손을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 간에 나이, 성(gender), 종교, 인종의 평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 사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류평등주의적인 정보의 접근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서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면서 훌륭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서는 대중들이 평등에 기초하여 서로의

12) 도서관에서 지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나 정보기관의 감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지지하는 사서, 기술자, 변호사, 그리고 프라이버시 옹호자들 간의 협력체이다. <<https://libraryfreedomproject.org/>> [cited 2016. 10. 30].

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서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생각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amek, xii-xiii).

그리고 Samek은 진보사서는 역사적 불평등을 알리기 위하여, 탄원서, 성명서, 결의안, 집회, 보이콧, 대안적 프로그램, 출판, 로비 그리고 일상적인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Samek, 13).

이러한 사서의 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그녀는 진보사서의 사회적 행동을 정의하였다. 그녀는 이것이 도서관을 둘러싼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예를 들어, 반테러 입법)에 대한 행동과 반응이라고 정의하면서, 역사적으로 도서관의 중립성이란 개념은 리터러시(literacy)와 같은 사서의 전문적인 이슈와 전쟁과 같은 소위 비전문적인 이슈로 양분되는데, 전자를 도서관 옹호주의(library advocacy)로 그리고 후자를 도서관 실천주의(library activism)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녀는 진보사서가 사서직의 중립성이란 빈약한 논리를 수용하지 말고, 도서관의 사유화를 통한 상업화 및 시장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서직의 비민주적 성향에 맞서 싸워야 하며, 이러한 싸움에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진보적 가치를 토대로 사상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Samek, 7).

결론적으로 진보사서직의 역할이란 원주민, 다문화인, 여성, 동성애자, 정치적 급진주의자와 같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사회소수자들이 지적 자유를 통하여 자신들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교양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사서직에서는 도서관의 상업화와 시장화, 그리고 사서직의 중립성은 보수주의를 의미하므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조이아 혼의 생애와 활동

1. 좌우명

소련(현 러시아) 태생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사서인 Zoia M. Horn(이하 Horn이라 함)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Brooklyn 대학과 Pratt Institute의 도서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초중등학교시절에 그녀는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자신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자신의 삶에 좌우명을 확립시켜준 2명의 선생님과 미래의 직업으로 사서를 선택하도록 영향을 끼친 1명의 사서를 만났다.

첫 번째 인물은 Miss Cammeyer 이다. Horn이 미국에 와서 처음 등록한 학교에서 시민권이란 의미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인 Miss Cammeyer로부터 ‘노블리제 오블리즈(Noblesse oblige)’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설명과 함께, 타인을 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돕는 것이 의무라는 충고를 받고, 그녀는 자신의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이것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숭고한 기준이 되었다(Horn, 15-16).

Horn의 두 번째 좌우명은 고등학교 시절, 신문방송반에서 활동하면서 담당 선생님인 Mr. Berger의 다음과 같은 충고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감성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아픔을 느끼는 능력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능력에 의해 측정된다.” 그의 이 말은 Horn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윤리적 잣대가 되었다(Horn, 29).

그리고 마지막으로, Horn이 미래 직업으로 사서가 되는 것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뉴욕공공도서관 분관에서 근무하던 어린이 담당사서(분관장)였다. Horn의 초등학교 시절 이름을 모르는 어린이 담당 사서가 소련에서 온 자신에게 미국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녀는 이러한 책들을 읽고 미국 생활에서 자신의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생각하길 이 사서는 머리 뒤에 눈이 있어서 그녀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며, 또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자와 공유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그녀는 비인간적으로 보일만큼 냉정했으나 이용자를 강하게 만드는 촉매자였다(Horn, 16). 이러한 이름 모르는 사서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동하여, Horn은 이때부터 자신도 똑같이 이러한 감사와 도움을 타인에게 줄 것을 결심하면서 미래에 사서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2. 주요 활동

Horn은 대학 졸업 후 1942년에 처음으로 사서가 되었으며, 그 후에 여러 지역 도서관을 거쳐, 1977년에는 ALA의 IFC(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녀는 사서로서 평생 동안 남녀평등 및 지적자유 옹호자로, 그리고 반전 및 평화주의자로 활동하였다.

특히, 1972년 Harrisburg Seven¹³⁾ 음모사건 재판은 그녀를 전국적으로 진보사서라는 명성을 얻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재판에서 그녀는 지적자유와 프라이버스의 직업적 원칙에 위배되는 정보를 누설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맞서서, “가정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정부가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사교의 자유를 금지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13) 미국 닉슨 대통령시절 헨리 키신저를 납치하기 위하여, 반전활동가 신부인 Philip Berrigan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연루된 재판. <https://en.wikipedia.org/wiki/Harrisburg_Seven> [cited 2016. 10. 30].

주장하면서 직업과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법정증언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법정모독죄로 투옥된 최초의 미국 사서가 되었다. 그녀는 정부기관(FBI)의 불법적인 도청에 대하여 ALA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ALA에서는 그녀의 도움 요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다¹⁴⁾: “집행 위원회는 Horn 부인이 Harrisburg Seven 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거부한 것은 양심에 따라 개별적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본 위원회는 합법적인 법원(duly constituted court of law)에 도전하는 그녀의 행동을 지지할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ALA의 중립적 태도에 대하여, 그녀는 LBR(Library Bill of Rights)의 내용을 근거로 비난하였다.

그 외에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도서관 활동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939년판 LBR의 내용에서 진보성을 약화시키려는 개정시도에 반대;
- 2) ALA를 거의 양분시킬 수 있었던 ALA 지원 영화 The Speaker¹⁵⁾의 옹호;
- 3)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저항;
- 4) 공공도서관의 비용지불은 또 다른 검열이라는 이유로 반대.

Horn의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녀는 2002년에 the Jackie Eubanks Memorial Award 그리고 the Robert B. Downs Intellectual Freedom Award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이 같은 지적자유사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도서관 협회에서는 매년 자신들의 주에서 지적자유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 집단, 조직을 대상으로 the Zoia Horn Intellectual Freedom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IV. 조이아 혼의 도서관 자유 사상

이 글에서는 미리읽기(pre-reading)를 통하여 자서전에 나타나 있는 그녀의 도서관 자유사상을 평등, 지적자유, 그리고 인류평화란 키워드로 범주화하였다. 그런 다음 그녀의 자서전에서 서로 열키고설켜 있는 다양한 주장과 신념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1. 평등

Horn의 평등사상은 남녀평등사상인 성차별금지에서 출발하여 인종차별금지, 특히 흑인의

14) ALA의 지원거부 성명서 내용 <https://www.jstor.org/stable/25618893?seq=1#page_scan_tab_contents> [cited 2016. 10. 30].

15) 대학교수가 미국 흑인의 인종적 열성에 대하여 고등학교에서 강연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이다. <<http://www.ala.org/tools/atoz/speaker>> [cited 2016. 10. 30].

평등사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도소의 수형인에 대한 차별금지로 이어지고 있다.

가. 성차별금지

Horn의 남녀평등사상(sexism)은 어린 시절에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커다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행동은 그녀가 평생동안 이러한 사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녀평등주의자로 인식하여 결혼한 남편에게 요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에 그녀의 남편이 한 말¹⁶⁾은 결혼하기 전에 그녀를 평등하게 대우했던 남편과 다른 행동에 공포감을 느꼈으며, 낡은 여성 역할 모델을 설명하는 경멸적인 표현인 독일의 슬로건 kirche, kúche, kinder(church, kitchen, children)를 연상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가부장제와 남성우월주의야말로 사상의 자유보다 더 크게 변해야 하며, 이것이 여성운동의 기본적인 큰 파도(groundswell)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같은 자신의 남녀평등사상을 토대로, 그녀는 뉴욕공공도서관 분관에서 참고 및 청소년 담당 사서로 근무하던 시절, 자원봉사를 통해 Warren Township Public Library(Somerville, New Jersey)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이곳에서 남편과 가정에 불만인 여성의 모임을 결성하였다(Horn, 67).

또한 그녀는 Rutgers University Library 목록담당 사서로 근무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의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 남편, 출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애국적 의무라는 수많은 선전선동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¹⁷⁾에 대해 분명하게 거부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들의 교훈 중에서 여성에 관한 어떤 것들은 수용해야 한다고까지 급진적으로 생각하였다(Horn, 79).

1973-1977년에 ALA 평의원에 선출된 이후, 그녀는 도서관에서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¹⁸⁾의 설립에 관한 결의문을 제작하는데 일조하였다. 이 결의문에는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직업에서, 여성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과 행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Horn, 188), 1975년 국제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제정에 기여하였다.

나. 인종차별금지

Horn은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Black Panthers¹⁹⁾의 선구자들, Malcolm X²⁰⁾, 그리고 Martin Luther King²¹⁾ 목사의 암살과 보편적 평등권 보장 및 인종차별 종식이

16) Why don't you grow up?

17) sexy, efficient, motherly, responsible, warm, frigid, responsive, innovative

18)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in Librarianship

19) 미국의 혁명적인 흑인민족주의자 및 사회주의자 집단

란 슬로건을 외친 흑인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비밀전쟁을 비난하였다(Horn, 123). 또한 그녀는 교도소에서 빈번하게 흑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부한 잔혹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잔혹한 처우가 평범한 이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려 인간적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으나, 이들은 어디에도 자신들의 인권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처벌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였다(Horn, 151).

Horn은 1977년의 ALA의 “the Racism and Sexism Awareness” 결의문을 지지하였다. 이 결의안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 및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문서였다. 여기서 “도서관 학과는 교육적 경각심 프로그램, 사서를 위한 실질적 교육,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기타 편견적인 행위가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Horn, 196)하였으나, 이 결의문은 집행위원회와 평의회에서 폐기되었다.

또한 Horn은 ALA가 정책으로 채택하려는 1987년과 1988년 남아프리카의 올림픽 참가 보이콧 결의문을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 싸웠다. 이 보이콧의 목적은 그곳의 인종차별주의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폐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은 ALA에서 과거에 채택했던 반-인종차별주의 정책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의 분노에 찬 그리고 수사적인 주장에 의해 폐기되었다.

다. 수형인 차별금지

1976년 그 당시 Horn은 유일한 수형인 출신의 사서였으므로, 지역 교도소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책임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하도록 캘리포니아 공공도서관의 SRRT(Social Responsibility Round Table)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이때 Horn은 캘리포니아 죄수들에게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위대한 영감의 소지자인 사서(Marjorie LeDonne)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결의문에서 수형인을 컨트리 클럽 회원 처럼 대우한다는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도소 도서관도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수형기간동안 책과 잡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채택되었다(Horn, 189).

라. 분석결과

Horn의 평등사상에는 여성, 흑인, 수형인의 차별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들 사회약자와 사회소수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사람답게 살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Horn의

20) 미국의 흑인인권운동가이자 이슬람 행동가

21) 미국의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가이며 개신교 침례회 목사

남녀평등사상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사서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남녀평등사상을 당시에 억압받는 여성들을 상대로 전달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국제 여성의 날 제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흑인차별에 대해서도 그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ALA의 소극적 태도에 크게 실망했지만, 여성 및 흑인의 차별금지 선언서의 결의문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무엇보다도 Horn은 수형인의 인권탄압과 정보접근의 개선에 있어서 사서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며, 그녀 역시 기존의 거대 세력과의 싸움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적 자유

Horn의 지적 자유사상은 ALA 평의원 선출을 위한 비밀투표에 앞서 발표한 자신의 소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그녀는 “신문, 정기간행물, TV와 라디오로 구성된 정보 네트워크의 필수적 요소로 도서관을 인정하고 있는 광의적 지적 자유 개념을 지지하며, 쇼핑센터, 상점가, 자동차가게, 커뮤니티 센터, 교도소, 병원, 길거리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정부의 위협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통제, 정부의 비밀주의에 의한 정보통제, 그리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검열에 반대하며, 자동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투입하였지만, 오히려 전산화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orn의 지적 자유 사상은 자신이 UCLA 재직 중에 만났던 지적 자유의 대가(사상가이면서 저자)인 Everett Moore²²⁾와 LeRoy Merritt²³⁾의 영향을 받았다(Horn, 107). Horn의 지적 자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프라이버시와 정부의 위협

Horn은 1965년 ALA의 지적 자유에 관한 예비회의(More Than Lip Service)에 처음 참석하였는데, 이것이 그녀의 지적 자유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Horn, 165). 이 회의를 통해, 그녀는 사서로서 우리 모두가 조국의 선을 지키는 힘(a force for good)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정부의 위협에 맞서서 지적 자유를 보존하고 방어하는 특별한 힘이 되었다.

22) 하버드대학 출신의 대학 사서이며,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the Freedom to Read Foundation에서 활동하였다. 1999에 American Libraries에서 그의 이름을 the “100 Most Important Leaders We Had in the 20th Century.”에 포함시켰다. <https://en.wikipedia.org/wiki/Everett_T._Moore> [cited 2016. 10. 30].

23) Dr. Merritt는 지적자유보호를 위한 가장 열성적인 방어자들 중의 한 사람이며, 사서직은 결코 검열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박사 사서이다. <<http://www.ala.org/groups/affiliates/relatedgroups/merrittfund/leroycmerritt/leroycmerritt>> [cited 2016. 10. 30].

특히 Horn이 자신의 지적 자유사상과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Harrison Seven 재판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재판은 전화도청 및 감청에 의한 FBI의 함정수사였다. 그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생각은 이 재판의 법정진술서에 잘 나타나 있다: “..... 이 음침한 허구(black charade)에 대하여 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 ... 정부는 가정, 도서관, 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금지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다.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소풍가고 파티하는 것조차도 사악스러운 의심을 받고 있다.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일상적인 토론이 음모론자인 정부에 의해 악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 법률적으로, 나는 도청에 대한 나의 주장을 부정하는 법정의 결정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 ... 옳다고 믿는다.”

또한 그녀는 판사가 제안한 “transactional immunity)”²⁴⁾를 부당하다고 거부하여 법정모욕죄로 구속되었는데, 이러한 그녀의 양심적 결정은 자신의 종교적 권능 내에서 도와야 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타협할 수도 있는 논의조차도 거부한 Sister Jogues²⁵⁾의 증언거부에서 영감을 받아 이루어졌다. 차후에 그녀의 이러한 영감은 ALA의 정부위협에 대한 결의문²⁶⁾ 내용에 사서와 이용자 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Horn, 126-127). 이 결의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Horn, 165):

“생각하고, 전파하고, 토론하는 자유는 지적 자유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우리의 정부가 정보원, 전자 감시장비, 대배심제, 그리고 영장을 사용하여 이러한 자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 ALA에서는 2 가지 윤리적 기준(provisos)를 확인한다: 첫째, 사서는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직업적 관계에서 형성된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사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대출기록을 열람하거나 이용자와 그들의 독서습관을 조사하는 정보원과 같은 역할에 협력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Horn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에 근거하여 이 결의문을 작성하면서, 정부의 힘이 반대자를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악법과 위협한 정부의 행동에 도전하는 것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correctives)이며, 이러한 수단이 바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Horn, 169).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정부의 정보기관 및 국제청의 검열이 모든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시장(free marketplace for ideas)’을 지향하는 지적 자유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므로, 정부의 검열형태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내용(Horn, 171)을 이 결의문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4) 화해에 의한 소추의 면제: 증언을 대가로 검찰의 기소를 면해주는 제도

25) 뉴욕 맨해튼의 the Sacred Heart of Mary 수녀원 원장

26) ALA, The Resolution on Government Intimidation

이처럼 Horn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서로서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여겨야 하는 자유 - 프라이버시, 사상,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 - 를 위협하는 정부에 도전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자유들이 정부의 공포와 위협으로 인해 제한된다면, 변화와 개선을 부르짖는 반대자들의 샘물은 말라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이 같은 생각은 헨리 소로(Henry Thoreau)²⁷⁾의 시민 불복종(civic disobedience)에서 영감을 받았다(Horn, 167).

나. 정보접근의 자유

Horn이 고등학교도서관(Watchung Hills Regional High School Library) 사서로 근무했던 시기인 1956년에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교육 및 과학 연구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것을 기회로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지적 요구가 사회과학 교사와 학생들에게서 발생함으로써, 그녀는 Karl Marx의 Das Kapital과 The Communist Manifesto 같은 서적을 구입하여, 학교도서관장서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Horn, 186). 그녀가 이 같은 도서를 구입한 이유는 그 당시에 소련을 “evil empire”로 규정하여 교사 및 학생들에게 국가에 관한 정보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미국과 매우 다른 가치를 가진 정부시스템 아래에서 생활하는 전 세계 수십억 명 사람들의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기회조차도 차단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Horn은 시민에게 정보와 기분전환(recreation)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임무이므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보접근의 자유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소이며, 이중과세(Horn, 107)라 비난하면서,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당연한 시민적 기본 권리라 주장하였다.

그녀의 이 같은 주장은 그녀가 주도한 ALA의 1977년 정보접근자유에 관한 결의문²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금지원을 받는 공공도서관은 ...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정보 접근의 기타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 정보요금의 부과를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 ALA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면서, 아이디어와 정보의 개별적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맞설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LA는 공공의 그리고 기타 세금지원을 받는 도서관에서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정보접근의

27) H. Thoreau는 미국의 철학자·시인·수필가이다. 인두세 납부 거부로 투옥도 당했고, 후에는 노예 해방 운동에 헌신하였다. 그의 사상은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져서,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과 킹 목사의 시민권운동 등에 영향을 끼쳤다. <https://en.wikipedia.org/wiki/Henry_David_Thoreau> [cited 2016. 10. 30].

28) ALA, Resolution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https://www.google.co.kr/webhp?sourceid=chrome-instant&ion=1&espv=2&ie=UTF-8#q=ALA+resolution+%22free+access+to+information%22+Horn>> [cited 2016. 10. 30].

개념을 재확인하며, 추가로 ALA는 세금지원을 받는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무료였던 정보제공과 참고 봉사를 대가로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공식 기록을 변함없이 유지한다.”

도서관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 반대하는 그녀의 신념이 담긴 이 결의문은 우여곡절 끝에 1978년이 되어서야 ALA의 평의원회에서 채택되었다(HORN, 192).

Horn은 ALA의 경험을 통해, 단지 개개의 도서관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접근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공동전선을 구축할 연합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녀는 북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14개 기관을 Coalition for the Right to Know(CRK)란 이름의 연합체로 1980년에 구성하였다. 그녀가 설립을 주도한 연합체의 다음과 같은 목적을 살펴보면, 그녀의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다(Horn, 234): “... 공격받는 사람을 방어하는 것; ...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 노인차별, 인종차별, 성 차별, 장애인 차별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장애요소를 부각시키고, 정부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실시되는 사전 검열과 불법적 비밀성에 맞서는 조직적 행동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 중립성의 비판

사서직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다수의 진보사서들이 동의하고 있는 ‘자유는 공포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Horn의 ALA 활동시절에 사서직의 중립성에 대한 ALA의 분위기는 사서의 지적 자유란 깨지기 쉬운 품질의 공약이므로, 사서가 검열 공격을 받을 때, 그는 양극단을 피하면서 가장 공격력이 약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대하여 Horn은 Harrisburg Seven 재판을 통하여 분명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거의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정치적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잦은 사람에 의해 악법이 적용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Horn, 182). 그녀는 비록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법과 정부를 감시할 책임이 사서에게 있더라도, 사서직의 중립성이 과연 이 같은 감시와 비판의 책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커다란 회의감을 가졌다.

Horn이 비록 사서직의 중립성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졌지만, 도서관이란 싫든 좋든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장서,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역시 편향과 편견을 반영해야 하고, 정보제공 또한 자유로우면서 개방적이고 순수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주장, 토론, 참여, 결정할 수 있는 개방된 포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Horn의 이러한 신념은 1990년에 ALA에서 발표한 “Diversity in Collection Development:

An Interpretation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의 내용 중에서, “지적 자유는, 가장 순수한 의미로, 어떠한 인과관계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동을 보채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견해도 편애하지 않는 이념이다. ... 사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적 자유에 대해 자신의 관용적 척도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적 자유란 쪼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혐오하는 것에 대하여 관용이 베풀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용은 단지 수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다.”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Horn, 224):

“사서는 도서관에서 표출되는 모든 이슈들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지식에 누구나 아무런 문체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서직의 중립성 원칙에 맞서는, 사회소수자를 위한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타인의 생각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 밖에도 그녀는 사서직의 중립성과 관련된 사서의 행동요령으로 LBR의 2조²⁹⁾에서 선언한 것처럼, 도서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사서는 자신의 행동에서 이 철학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선입관이나 정치관과 상관없이 어떠한 견해라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할 직업적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orn, 220).

라. 정부의 비밀주의와 알 권리

Horn은 Harrison Seven 재판 이후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³⁰⁾에서 규정한 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FBI가 자신을 직접 도청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화회사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서 자신의 통화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알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일들 즉, 행정적 보복과 양갈음이 뒤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Horn, 151). 이러한 사적인 불이익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녀는 정부의 비밀주의, 예를 들어 니카라과, 칠레, 과테말라 등 남미에서 이루어진 CIA와 FBI의 비밀공작에 대한 정부의 음모 및 비밀주의를 비난하였다(Horn, 194).

정부 비밀주의의 반대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Horn은 첫 번째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오클랜드주 데이터 센터의 RTK(Right to Know)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간행물 서문에서, “나는 사람과 정보 사이에서 생성되는 더 많은 장애물이 불길하지만 아직도 존재하며, 이 장애물들은 정부나 권력기관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 ... 언론인, 학자, 과학자, 소비자 및 기타 집단들에게 만연해 있는 비밀

29) Libraries should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presenting all points of view on current and historical issues.

30) 정부가 통제했던 미공개 정보나 문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미 연방법.

주의, 오정보와 역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있다. ... 따라서 이 간행물은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민주적 근거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추세를 멈추고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출판한다.”라고 그 목적을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Horn, 195). 그녀는 또한 RTK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ALA와 관련기관 간의 연합체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the Coalition on Government Information(COGI)가 ALA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이 연맹의 목적은 정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bills(청원서)의 작성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알 권리의 챔피언을 위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정부의 위협에 맞서서 대중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이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Horn이 RTK에 제안한 “알 권리를 위한 프레스 프로파일(Right To Know Press Profiles)”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Horn, 237):

- 알권리에 대한 공격(Attacks on the Right to Know);
- 선전선동, 역정보, 오정보(Propaganda,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 공공연한 검열(Overt Censorship);
- 정보의 기밀성 및 은폐(Secrecy and Suppression of Information);
- 언론 및 미디어(The Press and the Media);
- 기타 보이지 않는 장애물(Other Hidden Barriers);
- 이견 통제(Dissent Control);
- 알 권리의 주장(Affirmations of Our Right to Know);
- 편파적 예산과 규정에 의한 검열(Censorship by Selective Budgeting and Regulation);

위의 주제 중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보이지 않는 장애물(Hidden Barriers)”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Horn은 정보 접근의 장애물인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주의 및 기타 사회적 편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프로파일의 주제 리스트에 Horn은 자신의 알 권리 개념을 압축해 놓았다.

마. 검열

Horn의 검열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수형생활에서 만난 흑인 혁명주의자의 사상논쟁 경험과 대학교 사서시절에 참가했던 미국 흑인용 서지자원의 연구 워크숍을 계기였다(Horn, 108). 흑인 역사기록은 노예 매매와 관리비용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있는 것조차도 미국의 부와 남부지역 백인지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들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을 근거로, 그녀는 흑인에 대한 억압과 검열에 대한 숨겨진 역사를 신세대에게 알려서 연구하도록, 이 주제에 대한 모든 기록물(노예문학, 일기, 노트북, 전단

지, 흑인 잡지 및 신문 등)을 흑인 연구자와 사서 모두가 발굴하고, 수집하고, 조직하는데 열성을 보여야 한다고 신념을 갖게 되었다. Horn의 이와 같이 정립된 신념은 검열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영원히 바꾸었다(Horn, 110).

Horn은 검열이란 노예제도 시절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인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노예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범죄로 처벌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람의 존재와 그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인간사 기록에서 누락될 때, 그리고 특정 기록을 고의로 생략할 때, 바로 시작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녀는 검열이 발생하는 이 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집단에 의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은 공포와 반목을 유발시키도록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검열권을 가진 백인중심의 사회는 흑인의 고용, 교육, 주거의 차별화를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이 되는 검열에 맞서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Horn, 112).

특히, 사서로서 Horn은 도서관 자료의 검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뉴저지 주 도서관협회의 IFC 의장시절에 “Candy”란 성애적 책 내용과 “Ms.” 잡지의 노골적인 성행위표현에 관한 기사 검열 사건이다. 그녀는 검열 지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이중성을 인정하도록 설득시켜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Horn은 영화의 검열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적성국가인 쿠바에서 제작된 영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화사에서 보급하려는 영화의 목록에 등급을 표시하려는 법무성의 요구에 맞서서, 영화사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ALA에서 제작한 The Speaker의 제작 및 내용에 대한 회원간의 격한 찬반 논쟁에서 그녀는 이 영화를 지지하였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제작 목적이 “첫 번째 수정헌법은 우리 민주적 사회를 발전시킬 기둥이며, 미래의 발전 역시 그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사고를 확신시켜서, 논쟁거리 작품의 보존 및 보급에 관한 도서관의 특별한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Horn, 202). 그녀는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한 지적 자유 위원회의 뉴스지 내용이 도서관 협회의 자체검열로 인하여 간단하게 기사화된 데 분개하면서, LBR에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협회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편견은 분명히 비양심적인 것이므로, 이 영화는 협회의 비민주적 행동, 무감각 그리고 지적 부정의 고통스러운 본보기(Horn, 219)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추가로 언론검열과 관련해서, Horn은 “방송채널의 소유권이 점점 더 거대화되는 상황에서, 정보, 의견, 그리고 창조적인 표현이 어떻게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보다 사상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뉴스로 판단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전달용으로 선택할 것인지, 또한 어떤 아이디어와 견해를 출판할 것인지에 대한 사서 자신의 의사결정 그 자체가 그 정보원의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효과적인 검열로 그녀는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Horn은 검열에 맞서서 사서들이나 협회에서 행동해야 할 주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다고 기술하였다:

- 검열공격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고립되어 있는 학교사서를 지원해야 한다.
- 참고업무의 전산화로 인한 비용부과는 정보접근의 평등성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 가정, 대학, 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자유로운 표현에 찬물을 뿌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저항해야 한다.
- 정보의 주요 통로인 언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 정보빈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열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그녀의 사서인권보호 사상이다. 1970년대 초 소련의 사서인 Raisa Palatnik가 모스크바에서 투옥되었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그녀는 국제사면위원회인 AI(Amnest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위기에 처한 사서들의 명단을 ALA에 보내 그들을 지원할 것과 스페인 감옥에 수감된 사서 Señora Alvares에 대한 ALA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된 뒤에 사라진 것으로 AI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대학의 도서관장에 대해서도 ALA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러한 행동이 AI에서 언급한 소수의 직업동료를 지지하는 가치있는 지적 자유 활동으로 생각했지만, ALA의 반응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다. 또한 뉴저지 주 도서관협회 IFC 의장 시절에, 그녀는 검열의 싸움에 관련된 사서들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지방 변호사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ALA의 “Intellectual Freedom: More than lip service” 회의도 적극 지원하였는데, 이 회의의 목적은 어떠한 형태로 된 검열의 요구에 대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민감한 분야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검열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사서를 위하여 ‘립 서비스 이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Horn, 95).

바. 민주주의와 독서의 권리

Horn은 1975년 지적자유교육과 관련된 기관³¹⁾에서 행한 연설문³²⁾에 자신의 민주주의와 독서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연설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의 자유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는 ‘독서자유 선언서³³⁾’의 첫 번째 문장인 ‘민주주의는 우리의 독서 자유에 절대적이다.’라는 두 문구는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1) Institute on Library Education for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Freedom

32) Confidentiality of the Librarian-Client Relationship

33) Freedom to Read Statement.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statementspols/freedomreadstatement>> [cited 2016. 10. 30].

독서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교양있는 시민이 숙려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무지하여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는 정도에 따라,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가 훼손되고 조정 받을 가능성의 크기가 결정된다. ... 시민의 아이디어, 양심, 신념은 그 자신의 관심사이자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다. ... 이용자들이 우리의 도서관에서 수집한 모든 사실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사서와 이용자 간의 비밀유지가 지켜져야 한다. ... 독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생관계이다. 하나는 나머지에겐 자양분을 공급한다. 역설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한 가지가 사라질 때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그녀는 “독서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를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I.F. Stone³⁴⁾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주장한 “자유와 가치를 끊임없이 경계하기 위하여, 사서, 신문기자, 일반 대중은 계속해서 신문, 잡지, 정보 보고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독서의 자유 간의 필연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Horn은 또한 민주적 삶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1948년에 LBR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도서관을 “민주적 삶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as an 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라는 최초의 표현이 “민주적 삶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as an institution of education for democratic living)”로 변경됨으로써, 도서관과 민주주의의 연결성이 수동적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도서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 및 능동적 인 교육기능이 사라졌다고 비판하였다. 이 개정된 표현은 LBR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모든 사상의 표현 및 전달의 자유, 인종, 국적, 성 등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평등한 대우, 그리고 검열에 대항하기 위한 타인과의 협력을 본래의 의미와 달리, 수동적이고 중립적 표현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도서관과 민주주의에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또한 무의미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 문구가 그 후에 다시 “도서관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광장(forum)”이란 표현으로 변경되면서, 도서관과 민주주의의 연결고리마저 차단되었다고 분노하였다.

Horn은 또한 거대 언론사의 출현으로 인한 미디어 독과점에 대해 “통제된 정보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섬뜩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섬뜩한 것이다. 도전받지 않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정보이다.”라는 The Media Monopoly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판하였다. 이 같은 언론 재벌의 정보 독과점은 권위주의를 유발시키고, 권위주의는 중세유럽에서 페스트 병이 돌 때, 유죄인 죄를 죽이기보다 무죄인 마녀를 사냥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할 수 있다고 비난하였다(Horn, 236)

34) Stone은 미국의 조사기자이면서 작가이다. 그는 최고로 고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의 우익에 대하여 지적으로 분노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I._F._Stone> [cited 2016. 10. 30].

사.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Horn의 지적 자유 사상은 가장 먼저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BI의 함정수사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므로, 정부의 위협에 맞서서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나 국세청을 이용하여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훼손시키는 것에는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그녀는 믿고 있다.

Horn은 지적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를 동일한 가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부의 검열과 공공도서관의 비용부과로 인한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방해는 사회소수자의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차별로 이어지지 때문에 도서관계가 단결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서직의 중립성에 대한 Horn의 정의는 명확하게 진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사서직의 중립성을 포기함으로써, 사서는 모든 지식, 사상, 아이디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적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권리를 전달하고 보존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진보적 확신에 동의한다면, 사서는 정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소수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또는 사상적으로 배척되어있는 소수자를 위해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Horn의 알 권리 사상은 자신이 경험한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정보 은폐에 대한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비밀주의는 선전선동, 오정보 및 악정보, 그리고 선택적 예산배정 등을 강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켜 시민권을 위협에 빠트린다는 확신을 그녀는 갖고 있다. 또한 그녀는 개인 혼자서 또는 각각의 단체별로 이러한 정부의 부정직성에 맞서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관련 개인이나 기관들이 연합하여 대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자서전의 많은 부분에서 검열을 비판함으로써, 검열에 대한 Horn의 저항정신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음모사건의 피해자인 그녀는 수형생활 중에 만난 흑인 혁명가의 경험담과 자신이 참가한 흑인 기록물 관련 세미나의 경험을 통하여 검열의 부당함과 비민주성을 깨닫고 평생동안 검열에 저항하였다. 또한 그녀는 사서로서 도서관 자료나 영화의 주제가 성애적이거나 적성국에서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으로 저항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검열에 이처럼 저항하는 이유는 소위 “dirty book”(Horn, 181)이라 불리는 것을 단지 보호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값진 보물인 순수한 형질을 사서가 방어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도미노 이론처럼, 만일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 비록 더러운 책이라도 검열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아마도 우

리 모두가 더욱 주목해야할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 바로 이러한 저항정신의 뿌리이다. 그녀가 사서로서 걱정하는 것은 검열에 저항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녀는 검열에 대한 저항으로 불이익을 받는 전세계 사서들을 위하여, ALA를 비롯한 모든 도서관 협회가 단결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수사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끝으로 Horn의 지적 자유 사상과 관련해서, 그녀는 민주주의와 도서관의 연결고리는 독서의 권리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이용자 모두의 독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그들을 교양 있고 지적인 시민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그녀는 언론재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독과점은 권위주의를 초래하며, 이것 역시 민주주의의 위협요소이므로, 사서는 이것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3. 인류평화

가. 반전운동

Horn은 베트남전쟁을 호치민의 사회민주주의를 붕괴시켜서 서방세계의 자유기업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존하려는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함으로써, 미국이 권위적이고 부패한 베트남 통치자를 지원하기 위해 돈과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이 전쟁을 반대하였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조차도 제 3세계의 작은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침공, 납치, 매수, 폭격, 살해, 오염과 같은 행동과 심지어 자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평등, 인권의 훼손 행위조차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에 저항하기 위하여 철야농성하기, 의회와 신문사에 편지를 쓰기, 타인과 더불어 데모하고 행진하기, 운동기금 모으기, 전쟁세금 납부금지 등과 같은 비폭력 평화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Horn, 129). 또한 그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수감기간 중에 만난 흑인 무장혁명론자에게 인두세를 반대한 Henry Thoreau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반전주의와 평화사상을 설득시켰다(Horn, 181).

나. 반핵운동

Horn은 중국과 소련의 여행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 교육, 경제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공산주의 국가의 중요한 가치는 노동에 대한 존경에 있다고 믿었다.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의 'bete noire(몹시 싫은 물건)'이며 세상의 악의 예라고 여겨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에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양쪽 진영 모두를 수용하는 인류평등 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녀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서로 다른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인류평등사상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Horn, 248).

Horn은 또한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발의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과 더불어, 1976년 미국의 Three Mile Island 핵시설의 용해 사건 그리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으로 발생한 핵에너지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소 간에는 여전히 상대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러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Walk of Peace’³⁵⁾ 행사에 참가하였다. Horn은 이곳에 참가한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동지들과 더불어 더욱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 행사에서 그녀는 피임정보 교환, 낙태, 어린이란 주제를 다룬 여성문제 토론을 통하여, 소련여성은 여성의 평등권이 자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생활 전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비록 미국 여성은 소련 여성에 비해 ‘정당화된 지배(justified gripes)’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 여성들이 서로서로 여성자유운동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orn, 277).

다. 분석결과

Horn의 인류평화사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녀의 도서관 자유 사상과 커다란 대척점에 있는 정부의 비밀주의와 위협으로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차단되었던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중국, 소련에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이들 역시 전쟁, 핵무기, 핵사고로 인한 환경파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동서 양쪽 진영의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서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Horn은 평생을 자신의 좌우명처럼 사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서관 활동은 자신의 도서관 자유사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상이었으며, 이것은 미국의 헌법 및 유엔의 인권 선언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35) 냉전시절 미소 양국의 민간인들 차원에서 이루어진 평화 및 핵폐기 행진. <https://en.wikipedia.org/wiki/American-Soviet_Peace_Walks> [cited 2016. 10. 30].

지적 자유 및 정보접근 자유를 위협하고 훼손시키려는 정부의 비밀주의에 맞서는 것이 사서의 사회적 책임이며 의무라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도서관 자유사상은 Horn이 생각한 것처럼 쌍안경(binoculars)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꾸로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보는 것이다. 도서관 자유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수용되고 또 어떤 것은 배척된다.

우리가 인권 및 헌법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인지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이러한 책임이 도서관의 경계를 넘어 사회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사회소수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정부의 검열과 비밀주의를 감시하여 우리의 민주적 권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권리를 침해당한 동료들을 도우려고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선인 인류의 평화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시민정신의 모델로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위와 같은 Horn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자신의 몫이다. 아마도 그녀가 바라는 우리 모두의 답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인용한 Albert Einstein의 다음과 같은 답변일 것이다(Horn, 288):

“... 누구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똑같이 참여해야 한다. ... 권위주의 정부로 이끌려는 사람들은 반대세력을 위협하고 재갈을 물리는 데 특히 관심이 많다. ...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협조할 것을 거부한다. ... 헌법의 힘은 전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시민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쌍안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Horn의 진보적 도서관 자유사상은 우리 모두에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선호. 2014. 현대도서관직 중립성에 나타난 인권사상의 분석적 고찰.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25(4): 455-472.
- 노영희. 2012. 디지털도서관서비스기록과 이용자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187-214.
- 정현태. 20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 ALA. 2010. *Intellectual freedom manual* (8th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7.
- ALA. 1996. “ALA Policy Manual, B.2.1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la.org/aboutala/governance/policymanual/updatedpolicymanual/section2/53intellfreedom#B.2.1>> [cited 2016. 11. 10].
- Byrne, Alex. 1999. “Libraries and Democracies.” *IFLA, Keynote Paper for Seminar on Libraries and Democracy*, Stockholm. <<http://archive.ifla.org/faife/papers/others/byrne3.htm>> [cited 2016. 11. 10].
- Eryaman, Mustafa Yunus. 2010. “The Public Library as a Space for Democratic Empowerment: Henry Giroux, Radical Democracy, and Border Pedagogy,” in *Critical theo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ploring the Social from across the Disciplines*, ed. by G.J. Leckie, L.M. Given, and J.E. Buschman.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131–141.
- Hoffman, Anna Lauren. 2016. “Privacy, Intellectual Freedom, and Self-Respect: Technological and Philosophical Lessons for Library.” *Perspectives on Libraries as Institutions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dvances in Librarian*, 41. ed. by U. Gorham, N.G. Taylor, and P.T. Jaeger. WA, UK: Emerald, 49–70.
- Horn, Zoia M. 1995. *Zoia!: memoirs of Zoia Horn, battler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N. Carolina: McFarland. <<http://www.archive.org/details/zoiamemoirsofzio00horn>> [cited 2016. 11. 10].
- Jaeger, P.T., Berrot, J.C., Kodama, C.M., Katz, S.M., & DeCoster, E.J. 2011. “Describing and measuring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The growth of the Internet and the evolution of library value.” *First Monday*, 11(7). <<http://www.uic.edu/htbin/cgiwrap/bin/ojs/index.php/fm/article/viewArticle/3756/3074>> [cited 2016. 11. 10].
- Leckie, G. and John Buschman. 2010. “Introduction: The Necessity for Theoretically Informed Critiqu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Critical Theo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ploring the Social from across the Disciplines*. ed. by G.L. Leckie, L.S. Given, and J.E. Buschman.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vii–xxii.
- Peña McCook, Kathleen de la. 2014. “Librarians as Wikipedians: From Library History to Librarianship and Human Rights.” *Progressive Librarian: A Journal for Critical Studies and Progressive Politics in Librarianship*, 42: 61–81.
- Samek, Toni. 2007. *Librarianship and Human Rights: A twenty-first century guide*.

Oxford: Chandos.

Samek, Tomi. 2016. "Critical Reflection on Librarianship and Human Rights: A Book and Continuing Endeavor." *Perspectives on Libraries as Institutions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dvances in Librarian, 41. ed. by U. Gorham, N.G. Taylor, and P.T. Jaeger. WA, UK: Emerald, 245–26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Seon-Ho. "An Analytic Consideration on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Librarianship Neutrality." *Journal for Social Scienc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5(4): 455–472.

Noh, Younghee. "A Study of Digital Library Service Records and User Privac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87–214.

Joung, Hyun-Tae.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n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43–264.